

12주차 통번역입문 00 강의안

Translation of tense

시제

한국어의 현재시제는 어미 “-는/-”을 사용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 현재시제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보편적 사실을 나타낼 때도 쓰임은 물론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도 쓰인다.

ㄱ. 그 사람은 일주일 후 비행기로 서울을 떠난다.

ㄴ.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돈다.

(이근희, 2005, p. 73)

그의 예문은 미래시제이고 ㄴ은 보편적 사실을 “-ㄴ” 어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과거시제는 어미 “-었/았/였-”을 붙여서 표시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ㄱ.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제 돈 벌어 집사기는 다 틀렸다(이근희, 2005, p. 74).

위의 예문에서 “-였”은 과거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낸다. “-었었-”처럼 “었”을 중복해서 사용할 경우 대과거 즉,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거나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대과거는 어미 “-였-”과 어미 “-더”를 함께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ㄱ. 아까 서류를 다 작성해놓으셨더군요(이근희, 2005, p. 75).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로 “-겠-”이 있으나 현재 또는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ㄱ. 농촌에는 지금 추수가 한창이겠다.

ㄴ. 과수원에 사과가 벌써 빨갛게 다 익었겠다.

(이근희, 2005, p. 75)

ㄱ 은 현재의 상황을 추측하는 예문이며, ㄴ 은 과거를 추측하는 예문이다.

한국어는 영어의 완료시제를 과거 동사로 표시한다.

(ST 1) For centuries, people have used the oceans as a dumping place.

(TT 1)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해양을 쓰레기 투기 장소로써 사용해왔다.

(대안번역)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했다.

(이근희, 2005, p. 75)

위의 (TT 1) 번역문에서 현재완료를 “해왔다”로 번역했으나 “수세기 동안”이라는 표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상황을 표시하므로 불필요하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 한국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인 “-었/았”은 단순히 과거 사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ㄱ. 지금은 공부를 한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았다.

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ㄷ. 김일성 사망 소식을 지금 막 들었다.

(김정우, 1996, p. 122)

영어의 현재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면서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므로 현재완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었/았”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어는 한 문장 안에 쓰이는 동사가 모두 시제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부분만 시제를 나타내도 된다.

(ST 2) I had no time for vacation, no time for selection, no time for anything, for I had no time to spare(Dickens, 2003, p. 16).

(TT 2) 시간이 없었으므로...근거를 찾을 수도 없었고...골라 가며 훔칠 여유도 없었다(김태희, 2005, p. 21).

(대안번역) 시간이 없어서...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골라가며 훔칠 여유도 없었다. (TT2) 에서 밑줄친 부분은 모두 '었'을 포함해 과거 상황을 나타낸다. 하지만 대안 번역에서는 마지막 '없었다.'를 제외하곤 밑줄 친 부분이 모두 현재형이다.